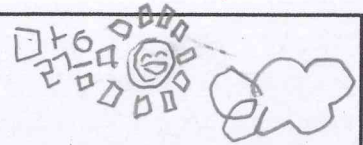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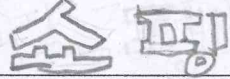
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



제목 :



우리 가족 모두는 옷을 사러 갔다.
우선 엄마께서 사고 싶은 옷을 샀다.
엄마께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러가지
옷을 입어 보셨다. 그래서 엄마께서는
화려한 치마와 멋진 바지들을 사셨다.
다음 차례는 내 옷을 사러 갔다.
거기에서는 예쁘고 화려한 치마들이
만났지만 엄마께서는 편안한 바지를
사라고 하셨다. 그래서 나는 마음이
조금 상하기도 했다. 그래도 엄마께서
편안한 바지를 사 주셔서 좋아했다.
시계를 보니까 런닝맨이 시작할
시간이라서 아쉽게도 신발은 못
샀다. 다음에는 꼭 신발을 사고싶다.